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2016년 6월 27일(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6.27(월)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6. 6. 24. (금)	담당부서	산업기술정책과 산업정책과
담당과장	천영길 과장 (044-203-4510) 황수성 과장 (044-203-4210)	담 당 자	민문기 서기관(044-203-4511) 이창훈 서기관(044-203-4225)

산업 고도화를 위한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9월까지 수립
주력산업과 신산업을 아우르는 산업발전비전 연내 제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전기차 등 대체 수출주력품목 창출방안 내달발표

- 주형환 장관, 「제2차 신산업 민관협의회」에서 밝혀 -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금년 1월 취임 이래 연두 업무보고('16.1월),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2월) 등을 통해 **새로운 산업정책의 틀을 제시했고, 그 동안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 왔다.

○ 이는 궁극적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대체 수출주력품목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 산업부는 앞으로 주력산업의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9월까지 수립**하고, 산업전반의 **산업발전비전을** 당초 계획대로 **12월까지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업부는 6월 27일(월)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제2차 신산업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방향과 일정에 따른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방안의 세부전략을 논의했다.

【 제2차 신산업 민관협의회 개요 】

- 시간/장소 : '16. 6. 27(월) 07:30~09:30 / 더 플라자 호텔(메이플홀, 4F)
- 참석 : 산업부 장관, 대한상의 회장, 경제·금융·신산업 민간 전문가 등 30명 내외

주형환 산업부 장관 주요 발언

□ 브렉시트 관련 대다수 전문가들은 한국과 영국간의 교역·투자규모*, 영국과 유럽연합(EU)간 탈퇴협상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수출, 투자, 통상 등 **우리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 수출('15) : 73.9억불(전체의 1.4%), 투자('15) ; 영 → 한 2.6억불(전체의 1.2%)

** 리스본 조약 50조(출구 조항)에 따라 최소 2년간 영-EU 관계 재정립 협상(탈퇴 협상) 진행, 그 기간 중 영국은 유럽연합(EU) **회원국 지위** 유지

○ 다만, **금융부문의 변동성이 실물 부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실물경제 상황점검반'** 및 **일일 동향보고 체계**를 **구축 가동중이다.**

○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필요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 앞으로 관계부처, 전문기관 등과 함께 **영국과 유럽연합(EU)의 탈퇴협상 추이를 면밀히 확인** 하면서 ▲ 한국과 영국, 한국과 **유럽연합(EU)**간의 교역 및 투자, ▲ **유럽연합(EU)**의 경기위축, ▲ 금융 변동성 확대, ▲ 중국 등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전달경로에 따른 시나리오별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신속,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 보다 근본적으로는 **금년 초에 마련**하여 **일관되게 추진**해 온 **산업정책의 큰 틀**을 바탕으로, **산업구조 고도화를 흔들림없이 추진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외부환경에 덜 취약한 경제구조로의 전환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 산업정책 기본 틀 】

▲ **(정책기조)** 정부주도, 공급중심 → **민간주도**, **수요중심**으로 전환
▲ **(정책방향)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을 양대 축으로 추진
▲ **(정책수단) 사업재편, 규제완화, 집중지원, 융합 얼라이언스** 등 4가지 지원체계 활용

□ 주력산업 고도화에 관해서는,

○ 지난 6.8일 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내 컨트롤 타워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출범하는 등 산업 고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향후 **업종별 경쟁력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

① **현안기업 구조조정** : 기업·채권단 중심 **시장원리에 따라 추진**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6월), 지역경제 지원대책 발표(8월) 등 **조선관련 기자재 업체, 고용,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② **공급과잉 업종(조선, 철강, 석유화학)** : 고부가·핵심 영역으로 사업재편 유도

⇨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위한 금융·세제·R&D·고용 등 **지원 방안** 마련(7월말)
⇨ 업계 공동 자율 컨설팅을 통해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9월)

③ **경기에 민감하면서 신흥국들이 급속히 추격해오는 업종(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 중국 등 **후발국과의 격차 확대**

⇨ 과감한 시설 투자 및 미래 기술선점을 위한 **고부가가치화 방안 마련**(9월)

□ 미래 신산업 창출에 관해서는

○ 2월 무투회의에서 밝힌 ▲ **규제 완화,** ▲ **집중지원,** ▲ **융복합 플랫폼 구축** 등 세가지 원칙에 따라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중이다.

○ 무엇보다, 신제품의 수요창출과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해 포괄적 허용(네거티브)방식 **규제심사를 도입**하여 획기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중이다.**

-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54건중 53건, 5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151건중 141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한다.

(대표 사례)

▲ **(무인기)** 농업지원, 사진촬영, 측량탐사 등으로 한정된 사업범위를 네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국가보안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16.10월,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예정)

▲ **(자율주행차)** 서울-신갈 고속도로 구간 등 사전에 정한 지역에서만 가능한 시험운행을 네가티브 방식으로 전환('16.12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예정)

▲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하천부지 등 다양한 곳에서 허용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자유로운 판매 허용(전기사업법 개정예정)

○ 앞으로 미래산업 전망과 함께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금년 7월부터 **에너지 신산업, 전기차, 스마트카 등 개별 분야별 발전 방안을 발표한**다.

- 특히, 에너지신산업 대책은 **과감한 규제완화, 종합적인 지원조치**를 담을 계획으로, 더 이상 **에너지 규제가 기업투자의 발목을 잡는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주요 발언

□ 박 회장은 대한상의 조사내용을 통해 기업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변해야 한다는 위기의식도 늘고 있음을 언급하며, 변화 의지가 혁신으로 연결되지 않는 병목현상 해결에 협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 조사결과 **기업은 78.5%가 주력사업이 성숙기·쇠퇴기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혁신을 이루지 못하면 40개월도 버티기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이어 병목현상을 풀기 위한 방법으로 규제와 같은 **'장애물(Road Block)을 푸는 방향'**과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 2가지가 있다고 제시했다.

○ 규제를 풀더라도 규제하는 사람과 규제받는 사람간의 체감온도에는

차이가 있다면서, 신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일거에 해소하는** '대폭발(Big Bang)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성장 지원의 경우 창업 이후 **양산, 판로계획 등 다음차례(Next Round)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의 효율성 향상**을 요청했다.

주요 발표 내용 **※ 참석자 주요 발언 요지는 회의 후 별도 배포**

□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글로벌 신산업 발전전망과 대응전략 등 **우리 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중장기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연구원 및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각각 발제했다.

< ① 산업연구원 :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

□ 정부는 시장 친화적 룰과 틀을 제공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 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뒷받침**할 필요하다.

□ 우리나라가 처한 현 상황에서 산업구조 고도화는 **▲ 구조조정, ▲ 사업재편, ▲ 기존 경쟁우위 강화, ▲ 규제완화, ▲ 융복합**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야 가능하다.

○ 이를 위해 민간과 정부 간의 긴밀하고 전략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 ② 한국개발연구원(KDI) : 글로벌 신산업 발전전망과 대응전략 >

□ **제4차 기술혁명**은 산업구조 변화 및 국제 분업구조 재편을 초래

○ 신기술 산업화 기제에서 **한국은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에도 뒤지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 혁신기지로의 전환 과정에 있어,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 절박한 상황이다.**

□ 국내 신기술 산업화 역량 평가, 선진국과의 역량 비교 분석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할 산업 분야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업과 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산업부는 이번 논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업종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붙임 자료]

1. 제2차 신산업 민관협의회 개최 계획
2. 제2차 신산업 민관협의회 참석자 명단
3. 제2차 신산업 민관협의회 산업부 장관 모두말씀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민문기 서기관(044-203-4511), 산업정책과 이창훈 서기관(044-203-42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2차 신산업 민관협의회 개최계획

□ 개최 목적

○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과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 그간 KDI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는 **글로벌 신산업 전망과 대응전략**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보완사항 논의

□ 협의회 개요

○ **일시 : 6.27일(월), 07:30~09:00(조찬)**

○ **장소 : 더 플라자 호텔(서울 소공동) 4층 메이플홀**

○ **참석자** : 신산업 민관협의회 위원 30명 내외

- **(공동의장)** 산업부 장관, 대한상의 회장
- **(참석위원) KDI, KIET, 컨설팅社, 거시·인문사회, 신산업, 대·중소·벤처기업 등 기존 민간위원**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고
07:30~07:35 ('05)	· **개회 및 기념촬영**	기술국장
07:35~07:45 ('10)	· **인사말씀**	산업부 장관 상의 회장
07:45~07:55 ('10)	· **(발표1)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산업연구원
07:55~08:05 ('10)	· **(발표2) 글로벌 신산업 발전전망과 대응전략**	KDI
08:05~08:57 ('52)	· **토론**	참석자
08:57~09:00 ('03)	· **마무리 말씀**	산업부 장관

붙임 2 **제2차 신산업 민관협의회 참석자 명단**

구 분		소 속	성 명	직 위
의장(2명)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
거시 및 인문사회 전문가 (9명)	경제	KDI	김준경	원장
		KIET	유병규	원장
	컨설팅	베인&컴퍼니 코리아	홍범식	대표
		맥킨지 서울사무소	최원식	대표
		BCG 서울사무소	이병남	대표
		골드만삭스	권구훈	전무
	금융	한앤컴퍼니	한상원	사장
		삼성증권	윤용암	대표
	언론	한국경제신문	안현실	논설위원
신산업 분야 (8명)	ICT융합	산업융합옴부즈만	이주연	옴부즈만
	빅데이터	네이버	김상헌	대표
	바이오의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학종	교수
	항공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김응태	본부장
	IOT	성균관대학교	최재붕	교수
	에너지신산업	LS산전	구자균	회장
	문화	SM엔터테인먼트	김영민	대표
	온라인유통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김윤태	부회장
기업규모별 (9명)	대기업	삼성전자	권오현	부회장
		SK텔레콤・하이닉스	임형규	부회장
		LG화학	박진수	부회장
	중견기업	한미약품	이관순	사장
		루멘스	유태경	회장
		컴투스・게임빌	송병준	대표
	벤처・중소기업	벤처기업협회	정준	회장
		에스엔에스에너지	김찬호	대표
		아이센스	남학현	사장

붙임 3 | 장관님 인사말씀

제2차 신산업 민관협의회 모두말씀

2016. 6. 27(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1. 인사 말씀

반갑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이른 시간부터
같이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금요일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로 결론이 나면서
글로벌 경제에 새로운 불확실성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국제 및 우리 금융시장의 경우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당분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됩니다.

그러나, 국내·외 대다수 전문가들은
금융시장 변동성은 커지겠지만 수출·투자·통상 등
브렉시트에 따른 우리 실물경제 영향은
단기적으로 제한적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 Brexit 발생시 '18년 EU 이외 지역 GDP 0～△0.2% 하락 전망(IMF)

우리의 對영국 수출은 작년 74억불로
총 수출의 1.4% 수준이며,
영국의 對한국 투자도 2억 6천만불로
외국인투자의 1.2% 수준입니다.

또한, 리스본 조약에 따라
영국이 실제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시점은
최소 2년 이후로 전망되며

그 동안 영국과의 교역에서
한·EU FTA가 계속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융 부문의 변동성이
영국은 물론 EU 등 세계경제에 부정적으로 파급되면서
실물 부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 금요일
「실물경제 상황점검반」을 가동한 데 이어,
영국과 EU 회원국 내 공관, 코트라 무역관 등을 통해
일일 동향보고 체계를 구축·가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처, 국책 연구기관 등과 함께
영국과 EU의 탈퇴협상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시 한-영 FTA 협상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는 한편,

▲ 한국과 영국, 한국과 EU간의 교역 및 투자,
▲ EU의 경기위축,
▲ 금융 변동성 확대,
▲ 중국 등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전달경로에 따른 시나리오별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기업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글로벌 경제변화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 연초부터 꾸준히 진행해 온
산업구조 고도화를 흔들림없이 추진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외부환경에 덜 취약한 경제구조로의 전환에도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2. 산업정책의 큰 틀

제가 산업부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산업부는 1월부터 금년도 연두업무보고,
2월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최근 세계 경제·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한
산업정책의 큰 틀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모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산업정책 방향과 원칙을 밝히고,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민관합동의 산업정책 논의의 플랫폼으로
「신산업 민관협의회」도 지난 4월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회의를 맞아
산업정책의 큰 틀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크게 3가지 원칙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정책기조를
그 동안의 정부주도, 공급중심에서
민간주도, 수요중심으로 전환하고,

둘째, 정책 방향은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을 양대 축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책 수단으로서는 사업재편과 함께 규제완화,
집중지원, 융합얼라이언스 등 4가지 지원체계로
뒷받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3대 원칙하에, 그간 추진해 온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노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선진적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달에 대체 수출주력품목 창출방안을 발표할 것이고,
9월에는 주력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며,
연말에는 이를 종합하여 주력산업과 신산업을 아우르는
우리 산업전반에 대한 산업발전 비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3. 주력산업 고도화

주력산업 고도화 관련
그간 진전상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정부는
선제적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내 컨트롤 타워로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출범시켰습니다.

우선, 채권단이 관리하는 현안 기업은
채권단과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원리에 따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품·기자재 등 중소협력업체, 고용, 지역경제 등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6월말에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한편,
다각적인 지역경제 지원대책도 준비하여
8월중으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구조적 공급과잉이 제기되는 업종은
업계 공동으로 자율적 컨설팅을 통해
9월까지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8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기업활력법을 통해
이러한 업종의 선제적·자발적인 사업재편을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사업재편시 절차 간소화뿐만 아니라
규제를 과감히 풀어주고,
금융, 세제, R&D, 고용 등의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7월말까지 마련하여 이들 업종이 원활히 사업재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등
경쟁력은 유지하고 있으나,
경기에 민감하면서 신흥국들이 급속히 추격해오는 업종은

중국 등 후발국과의 격차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과감한 시설투자, 고부가가치화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하여
미래기술 선점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는
OLED,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등과 같이
신산업 창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R&D, 세제·금융 등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을
신산업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4. 신산업 창출

신산업 조기창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도 대폭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기업이 신산업 투자에 보다 과감히 나설수 있도록
앞에서 말씀드린 지원체계를 적극 가동하고 있습니다.

첫째, 신제품의 수요창출과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해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신산업은 대부분 융복합을 요하는 산업인 관계로
앞으로 기술개발과 함께 자유롭게 융복합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팔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원칙적으로 모두 물에 빠뜨리고,
꼭 필요한 것만 살려내는 네거티브식 규제 심사제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습니다.

이러한 네거티브식 규제 심사를 통해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54건중 53건,
5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151건중 141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대표 사례를 소개하자면,
무인기의 사업범위를 현재는 항공법령상
농약살포, 측량탐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올 10월부터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여
안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법령에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할 계획이며,

자율주행차도 현재는 서울-신갈 고속도로 구간 등
정부가 사전에 정한 지역에서만 시험운행을 할 수 있으나,
올 연말까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곳에서 시험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설치를
하천부지, 건물 등 다양한 곳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그 동안 한전만 전기를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을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가 생산을 하면서
소비자에게 자유롭게 판매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인력, 세제·금융, R&D 등을 집중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PRIME사업(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을 통해,
미래형 자동차 670명, 스마트 그리드 490명 등
신산업 관련 대학 정원을 1,800명까지 늘렸으며,

신산업 육성세제를 신설하여
유망 신산업의 R&D는 최대 30%, 시설투자도 10%까지
세액공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그 대상범위도 기업의 의견을
받아 대폭 늘리겠습니다.

민간의 투자리스크를 적극 분담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부터 1조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펀드'를
조성하여 고위험, 고수익의 신산업 투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에너지신산업 등 유망 신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입은행 수출금융 지원을 늘리고
원부자재·장비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도 확대할 것입니다.

셋째, 이업종간 융합플랫폼 구축입니다.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들과의 속도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합종연횡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융합 얼라이언스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자동차, 에너지신산업, 바이오, 신소재 등
4개 분야에서 이미 구축되어 운영 중이며,
이를 ESS, 소비재 등 타 분야로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는 미래산업 전망과 함께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7월부터 에너지신산업, 전기차, 스마트카 등
분야별 발전방안을 차례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특히, 에너지신산업 대책은
에너지시장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과감한 규제완화와 종합적인 지원조치를 담을 계획입니다.

4개월이 넘게 민간과 함께하며 만들어낸
제도개선과제, 전기차 등 신산업 핵심아이콘의 시장확대,
수급안정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에너지시스템의 개편 등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곧 발표될 에너지신산업 대책은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더 이상 에너지규제가 기업투자의 발목을 잡는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낙후된 시장구조 때문에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지는 사례를
더 이상 만들지 않겠습니다.

5. 맺음 말씀

오늘날처럼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경제시대에서
선도기업이 지속적으로 시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으로 2005년도에 선정된 기업중
2014년까지 지난 10년간 계속 지위를 유지한
기업은 약 29%, 즉 10개중 3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만큼 기술변화 속도가 빠르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뒤쳐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 많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성장의 역사를 돌아 보면,
끊임없는 혁신과 사업재편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산업이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산업재편, 즉 기존 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으로 선제적으로 재편하고,
새로운 산업을 계속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산업발전의 역사도
경공업에서 중화학 공업, 다시 전자와 ICT,
그리고 최근에는 그린산업으로 발전하는 등
바로 이러한 과정의 연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거 IMF 시절에 외부의 힘에 의해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선제적으로 산업구조 고도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민과 기업, 정부 모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경영전략가인
'게리 해멀' 런던 비즈니스스쿨 교수는
불확실성이 큰 21세기를 지배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창의성(creativity)」, 「주도력(initiative)」,
그리고 「열정(passion)」세 가지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열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열정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지금 상황을 대처해 나간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밝은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